

##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유수정\*\* · 최경석\*\*\*

I. 머리말	VI.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
II. 생명윤리적 담론의 성격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	V.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의 문제
III. 자유 존중의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VI.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학문적 과제
	VII.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생명윤리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자율성의 근대적 이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명윤리담론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사실상 자유 존중의 원칙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사회이념으로 자리 잡는 사회상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생명윤리 담론은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지닌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공동체주의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 지지하는 공동체주의는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가 결코 아니며, 자율성이라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이다. 칼라한의 견해에서 주목할 수 있듯이, 공동체주의는 첨단 의·생명과학기술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제기함으로써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단지 개인들에게 유용하다거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그 기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아울러 칼라한은 자유로운 선택 중에서도 무엇이 좋고 나쁜 선택인지 구별하는 것까지 자율성 개념이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윤리적 쟁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생명윤리학에서 답해야 하는 문제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해결되어야 함을 공동체주의는 시사하고 있다.

**【색인어】** 자율성, 개인선, 공동선,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 반응적 공동체주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8A003034450).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정책협력동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I. 머리말

생명윤리에서 자율성은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방식에 있어 점차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우선적인 원칙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며 확산되었고, 이런 확산은 생명윤리적 쟁점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개인이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liberal individualism)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서 첫째, 윤리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상대주의와 심지어 회의주의를 만연시킨다는 점, 둘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을 오로지 개인 선택의 물음들로 환원시키고 이 이슈들이 지닌 사회적 측면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생명윤리적 담론 방식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따른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기존 담론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성이란 개인선(individual good)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접근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적 접근 방법, 특히 반응적 공동체주의(responsive communitarianism)에 주목하고자 한다. 반응적 공동체주의는 자율성이란 개인선과 공동선 양자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공동선을 소홀히 여긴 자유주의의 편협성을 피하

면서도,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authoritarian communitarianism)의 배타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찰에서 공동체주의는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형성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다룰 것이며, 아울러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가 좀더 완벽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이론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 II. 생명윤리적 담론의 성격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

생명윤리학은 1960년대 말과 1970년 초에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분야이다. 생명윤리의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율성은 점차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 예로 1979년 비취(Tom L. Beauchamp)와 켈드리스(James F. Childress)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네 가지 도덕 원칙들, 즉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 원칙,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을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로 제시하였다.

이들 원칙들은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같은 규범윤리학에서의 정언명법이나 공리의 원리와 같은 근본적인 원칙 또는 이론 체계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원칙은 아니다. 이들의 원칙은 이론과 실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수준의 원칙들(middle level of principles)로 제시하였다. 이 원칙들은 신중 학문으로서 생명윤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필요로 하던 당시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측면이 있어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하

지만 비췌과 켈드리스의 저서에서 네 원칙들 중 공공 룩계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제일 먼저 소개되었고, 네 원칙의 상호갈등과 충돌이 조정되고 균형 잡기를 통해 해결책에 도달해야 함을 본인들도 강조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췌과 켈드리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에 대한 논의를 자율성 존중의 원칙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이 원칙이 다른 원칙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음 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sup>1)</sup> 그러나 비췌과 켈드리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우선적인 원칙으로 이해하는 현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윤리적 쟁점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식으로서 자율성 존 중의 원칙에 호소하는 경향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생 명윤리적 쟁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방식과 도 관련이 있다. 생명윤리적 쟁점들은 의·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쟁점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낙태라는 전통적인 논쟁에서도 산전 진단과 같은 기술이 개발되면서 심각 한 장애나 유전질환을 지닌 태아의 낙태와 같은 문제 가 낙태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연명치료중단 이나 인공호흡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로 중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 생명의 연장이 인위적 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보조생식술이 제기하는 많은 쟁점들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출산 방식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위와 같은 쟁점들에서 주목할 수 있듯이, 개인적 차 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개 인의 행위를 사회가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 지 않는 한,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형성될 수 있다. 생명윤리적 쟁점을 이런 방식으로 파악하는 한, 자연스럽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여러 원 칩들 중에서도 우선적인 지위를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III. 자유 존중의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이처럼 생명윤리적 쟁점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율 성 존중의 원칙이 주목받게 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여 기서 이해되고 있는 자율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자율 성 존중의 원칙을 네 원칙 중 하나로 삼았던 비췌과 켈 드리스가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록 하자. 비췌와 켈드리스는 자율적인 행위란 “(1) 의 도를 갖고(intentionally), (2) 이해와 함께(with understanding), (3) 그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지배적 영향력 없이(without controlling influences) 행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자율성의 세 가지 조건들”이라고 부르고 있다.<sup>2)</sup> 우리는 위 세 가지 조건들을 자율성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의도”를 가지고 행위 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나 선택이란 행위자의 의사 결정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해와 합 께” 행위해야 한다는 조건은 행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 한 실질적인 수준의 이해로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를 결정하는 지배적 영

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강압이나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sup>3)</sup>

그러나 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비췌와 켈드리스 는 자율적 행위나 선택의 내용이 왜 도덕적 선택이나 결정인지 고려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다.<sup>4)</sup> 따라서 생명윤리적 쟁점들과 같이 윤리적인 사안을 담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결정은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진정성을 지닌 의도를 갖고서 어떠한 외부적 강압없이 판단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이 본인에 게 제시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어떤 요소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비췌와 켈드리스는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제6판에서 자율성 존중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철학자로 칸트와 밀을 소개하고 있다.<sup>5)</sup> 우선 그들은 “칸트는 자율성의 존중은 모든 사람이 무 조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각자는 자신의 도덕적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한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대하는 것 즉 그 사람이 추구 하는 목표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사람의 목표를 따르 도록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sup>6)</sup> 반면, “밀은 자율적인 행위자의 ‘개별성’(individuality)에 주 로 관심을 지녔다. 그는 개인들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표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회는 이 개인들이 자신들의 확신에 따라 발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칸트의 자율성은 정언명법

과 관련을 맺으면서 윤리규범들이 지녀야 할 보편화가 능성, 인간성에 대한 목적으로의 대우 등 정언명법의 다른 형식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밀은 사실상 자유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 에서 비췌와 켈드리스가 주장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란 밀이 말하는 자유를 존중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 으며, 따라서 자유 존중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8)</sup>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자유 존중의 원칙으로 이해되며 생명윤리의 담론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서구사회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liberal individualism)라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미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70년대는 제2차 세계대 전을 겪은 후 냉전시대가 결정에 달했던 시기로, 구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이 있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사회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이 념을 정치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자유주의 적 개인주의는 중요한 사회적 이념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운동 측면에서도 여성 및 흑인의 인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개인의 권리는 중요한 사회적 개념으로 정착되었 다. 윤리적 측면에서도 롤즈(John Rawls)는 『정 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서 다원 주의의 하나의 사실로서 인정하면서 이성적 불일 치(reasonable disagreement)의 존재, 관용의 덕

1) Tom L. Beauchamp &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7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101. 4 장 자율성 존중에 대해 설명하는 도입부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2) Tom L. Beauchamp &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7th edition), p.104.

3)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1, p.17.  
4)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p.17.  
5) 비췌와 켈드리스는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7th edition)에서 칸트와 밀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삭제는 비췌와 켈드리스가 이해하는 자율성이 밀의 자유에 가깝다는 본고의 주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췌와 켈드리스 가 자율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제6판과 제7판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6) Tom L. Beauchamp &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6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03.  
7) Tom L. Beauchamp &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6th edition), p.103.  
8)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pp.16-17.

을 강조하였다. 어떤 측면에서는 볼즈의 입장 역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9)</sup>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도 1970년초까지도 텍스(Dax) 사례<sup>10)</sup>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의 자율적 결정보다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가 지배적이었지만, 점차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의료의 모델 역시 의사와 환자의 동반적 모델이 확산되었다. 미국이 1990년에 '환자 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sup>11)</sup>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구사회는 점차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로 발전하였다.

이런 사회상의 변화는 생명윤리의 많은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 왜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성향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이 다른 방식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없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견해로 인해 공적 의견일치(agreement)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경향이 점차 증대되

고, 도덕을 개인적인 영역 또는 주관적인 견해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취급됨으로써, 생명윤리의 많은 이슈들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생명윤리의 영역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존 하드윅(John Hardwig)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미국사람들은 "개인주의적 환상"(individualistic fantasy)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2)</sup>

생명윤리의 영역에 있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의 문제에 대해 회의론과 잘못된 상대주의를 만연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윤리적 이견의 대립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일치에 대한 회의론을 촉발하고, 나아가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윤리적 믿음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극심한 이견 대립으로 인해 윤리 또는 도덕 그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잘못된 상대주의적 이해가 팽배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철학 또는 윤리학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 기대는 생명윤리의 쟁점들에 직면하여 좌절되는 경험이 반복됨으로써 이러한 상대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적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

9) 스테판 멀홀(Stephen Mulhall)-에덤 스윙트(Adam Swift)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에서 볼즈를 자유주의자의 대표자로 간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가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테판 멀홀-에덤 스윙트 지음, 조영달·김해성 옮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 2001 참조.  
 10) 텍스 코워트(Dax Cowart)는 1973년 20대 초반에 지하실의 가스선 폭발 사고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아버지는 곧바로 사망하였고, 텍스는 몸의 90% 이상 화상을 입은 큰 부상을 당했다. 그는 치료기간 동안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죽도록 내버려달라요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고통스런 화상치료를 계속 지속하였다. 그가 어떠한 정신적 결함을 지니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 Burton K., "A Chronicle: Dax's Case As It Happened," in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6th edition), edited by Steinbock B., Arras J. D., & London A. J., McGraw-Hill, 2003: 301-305 참조.  
 11) '환자 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은 1991년 시행되었으며, 낸시 크루잔(Nancy Cruzan)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이 법은 삶의 말기에 의료적 결정들에 대비하여 의료 문제들에 대한 의식과 논의를 촉진할 것을 의미한다. Koch K. A.,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The Journal of the Florida Medical Association*, 1992, vol. 79, Issue 4, p.240.  
 12) Hardwig J., "Is There a Duty to Die?," in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6th edition), edited by Steinbock B., Arras J. D., & London A. J., McGraw-Hill, 2008, pp.511-520 참조.

나 이성적 불일치, 관용의 덕에 대한 강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윤리적 의견 대립의 현상을 성급히 숙단하거나 이 현상으로부터 규범적 측면에서의 상대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이성적 불일치에 직면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견을 통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역사에서 축적된 공유된 윤리적 직관이나 개념 등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견일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칸트가 보편화 가능성을 통해 윤리규범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볼즈가 원초적 입장이나 무지의 배일 등의 이론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더라도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해 내려고 한 시도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둘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을 오로지 개인 선택의 물음들만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생명윤리적 쟁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들 쟁점들에 대한 선택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나름 타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며, 개인은 사회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으로 삶의 세계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은 개인주의와 선택만의 물음들로 함몰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 유전학과 재생산의 이슈들은 전체로서의 사회, 그 사회 가치들, 그리고 그 사회의 사회제도들과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sup>13)</sup>

유전학의 문제는 강화(enhancement)<sup>14)</sup>의 경우와 같이 사회정의의 문제와 쉽게 연결되며, 보조생식술의 문제와 같은 재생산의 문제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필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이 올바르게 전개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 사회제도, 문화, 개인적 선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생명윤리적 담론 방식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따른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생명윤리학의 분야에서도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피력하고 있어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윤리학의 정초를 위해 공동체주의적 접근 방법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IV.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

생명윤리에서 공동체주의적 논의들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접근방법에 대해 비판하면서,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문제 설정부터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칼라한은 생명윤리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13)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Volume 46, Number 4, Autumn, 2003, p.496.  
 14) "enhancement"는 "증강"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경쟁적 시각으로서 공동체주의를 제시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강한 경쟁적 목소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목소리는 공동체주의에서 발견될 수 있다."<sup>15)</sup>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화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에 덧붙여,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가장 중요한 생명윤리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지적인 장점이나 통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좋음(good)에 대한 "얇은 이론(thin theory)"은 생명윤리의 미래를 위해 완벽하지 않다.<sup>16)</sup>

위와 같은 이유에서 칼라한은 생명윤리학의 지적 풍부함을 위해 하나의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로 공동체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주의를 개인보다는 사회를 강조하며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사회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주의는 다양한 공동체주의적 입장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 입장은 매우 극단적인 입장을 지닌 공동체주의로서 보편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로 명명되는 입장들 모두가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주의는 개인선

(예를 들어, 자율성)과 공동선이 공존하는 공동체주의이다.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이러한 공동체주의를 '반응적 공동체주의'(responsive communitarianism)라 부르면서,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authoritarian communitarianism)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는 환자의 요구들보다 사회의 요구들에 특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반응적 공동체주의의 주된 출발점은 우리가 두 가지 상충되는 핵심적인 가치들인 자율성과 공동선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과 둘 중 어느 것에도 선형적인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들 간의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원칙들과 절차들을 갖는 것이다.<sup>17)</sup>

에치오니가 '반응적 공동체주의'를 제시한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질서가 한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수택은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가 균형을 잡기 위해 민감하게 애쓰듯, 공동체의 두 기본 속성인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질서 각각을 향한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15)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p.499.  
16)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p.499.  
17) Etzioni, A.,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vol 32, 2011, p.363.

을 뜻한다.<sup>18)</sup>

우리가 반응적 공동체주의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공동선을 소홀히 여긴 자유주의의 편협성을 피하고, 개인 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의 배타성을 거부하면서 양자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반응적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권리나 자율성과 같은 개인선과 공동체의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주의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개인선을 도외시하지 않는 반응적 공동체주의를 포함한 새로운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 또는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인가? 칼라한은 첨단 의·생명과학기술들의 도입과 오래된 기술들의 전개와 관련된 분석에 있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접근 방식과 공동체주의적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며 설명한다. 우선 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의·생명과학적 기술을 평가할 때, 그 추정은 항상 분명한 규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만일 일부 개인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욕구한다면, 그 개인들은 그 기술이 해롭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사변적 가능성이 아닌)가 제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아직 적용되지 않고 사용

되지 않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증거가 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은 적용될 수 있다.<sup>19)</sup>

반면 그는 공동체주의의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그 다음 질문들은 개인들에게 그 기술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그리고 (1) 그 기술이 공동선과 충분히 양립가능하여 그것의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 (2) 만일 그 기술이 완전히 양립가능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회는 그 사회의 일부 시민들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목 아래에,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잠재적 해들을 종종 허용할 수도 있다는 근거로 기술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다.<sup>20)</sup>

위 두 인용문들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접근 방법과 공동체주의적 접근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특히 공동체주의가 제기하는 의문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묻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떤 기술이 단지 개인들에게 유용하거나 의미를 지닌다는 이유만

18) 강수택, 『시민연대사회』, 아르케, 2007, p.309.  
19)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p.504.  
20)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p.504.

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않는다. 우선 그 기술이 우리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기술과 관련하여 그 기술의 이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그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인해 얻게 되는 이득과 해를 그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및 선택의 문제로 한정하여 논의했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설사 해당 기술이 공동선과 양립가능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판단할 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생명윤리적 담론은 어떤 첨단 기술의 사회적 수용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도덕적 관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도덕적 관점을 제공하는 공동체주의의 기여에 주목한다. 칼라한은 공동체주의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라는 용어를 해석할 때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사고의 방식을 특징짓는 것이라고 의미하였다. 덧붙여 그는 공동체주의를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이나 일련의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동체주의는 이슈를 형성하는 하나의 입장 또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

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을 제기하는 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가 제시하는 생명윤리적 쟁점을 형성하는 방식 즉 생명윤리적 문제들의 제기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의 성격을 달리 보고 기존과는 다른 쟁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생명윤리학에서 답해야 하는 문제들이 공동체주의적 시각에 의해 달리 설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가 지니는 의의는 현재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이 이야기하는 많은 쟁점들이 개인의 윤리적 선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윤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거시적인 공동체 차원에서 그 기술의 유의미성, 해악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공동체주의가 개별적인 쟁점들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는 본 논문의 관심사항은 아니다.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새롭게 형성하며 새로운 논의 아젠다를 설정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새로운 문제제기의 방식으로서의 공동체주의적 접근에서 자율성이란 가치는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 V.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의 문제

에치오니가 반응적 공동체주의라고 명명했던 공동체주의는 이미 언급했듯이 개인과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선으로서의 자율성과 공동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가 제시한 공동체주의를 반응적 공동체주의라 부르는 이유는 개인선과 공동

21)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p.503.

선이 모두 중요한 가치이며, 이 양자가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선으로서의 자율성은 공동선을 위해 희생되는 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에치오니는 "반응적 공동체주의는 [이들 두 핵심적인 가치의] 취급이 한 사회와 다른 사회 간에, 그리고 역사적 시기들 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고 기대한다."<sup>22)</sup>고 말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에치오니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균형점, 자율성과 공동선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는 자율성의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칼라한이 언급했던 개인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자율성과 공동선 중 어떤 것을 더 강조해야 하며, 두 핵심적인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는 해당 사회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반응적 공동체주의는 개인선으로 언급되었던 자율성과 공동선이 서로 대립되는 가치라기보다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상황과 맥락적 고려를 통해 두 가치의 균형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핵심적인 가치의 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는 다소 모호하다. 이것은 공동체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응적 공동체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중단 또는 보류와 관련하여 반응적 공동체주의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명치료중단 또는 보류의 결정에서 만약 이미 우리 사회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분위

기라면, 제도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공동선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될 것이다. 반면에 특별히 죽음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을 보다 강조하는 분위기라면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의 가치나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두 가치 중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사회 문화적 연구 후 간과될 수 있는 가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성과 공동선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에서 '자율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이해와 공동체주의적 이해는 크게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환자를 개인주의적 존재(individualistic being)로 간주하며,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개인적 선택에 대한 환자의 권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sup>23)</sup> 예를 들어, 제프리 블루스타인(Jeffrey Blustein)은 이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환자 자율성의 윤리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게다가 환자 단독으로, 치료의 기간과 조건을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일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결정을 위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들의 소망들이 우선한다.<sup>24)</sup>

공동체주의자들은 지나치게 강조된 자율성을 비판

22) Etzioni, A.,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p.364.  
23) Etzioni, A.,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p.364. 여기서 에치오니는 미국 생명윤리학자들이 환자를 어떻게 보고 있고 개인의 선택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초기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생명윤리학자들"이란 공동체주의자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따르는 생명윤리학자들을 의미한다.  
24) Blustein, J., "The Family in Medical Decision Making," *Hastings Center Report*, Vol 23, 1993, p.7.

하면서, 진정한 자율성의 실현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어느 한 독립적 개인이 수행하는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라는 견해를 지닌다. 우선, 칼라한은 자율성이 단순히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칼라한은 비취과 웰드리스의 네 가지 원칙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공동체주의적으로 해석됨으로써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sup>25)</sup>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율성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 자유로운 선택들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사적 선택들은 옳고 그를 수 있고, 좋고 나쁠 수 있고,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도덕적 조언과 판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러한 사적 선택들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26)</sup>

위 인용문은 칼라한이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준다. 자율성에 대한 판단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 자유로운 선택들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자율성은 단순히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며, 존중되어야 할 자율성의 발휘된 자유로운 선택들 중에서도 내용적으로 좋고 나쁜 선택이 무엇인지, 나아가 올바른 공동체적 삶에 대한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

려하여 판단될 것이다.

물론 칼라한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강조만 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있어 자율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열린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앞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단순히 자유 존중의 원칙이 아니라야 하고, 자율적인 판단은 최소한 윤리적인 고찰을 수행한 판단이어야 한다는 앞선 우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윤리적인 고찰을 수행한 판단이었는지 여부는 누구든 수용하는 공동 도덕과 배치되지 않는 한, 개인의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윤리적 고찰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 도덕과 배치되지 않는 한, 내용적으로 특정 가치가 고찰되지 않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적인 고찰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율적인 판단이라 단순히 선호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라한은 “사적 선택들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사실상 자율성은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마스 머레이(Thomas H. Murray)는 “자율성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에 관한 즉, 사랑과 지속적인 충성심과 연민의 성장을 지지하는 가족들과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

한 이야기의 단지 일부뿐일 수 있다.”<sup>27)</sup>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율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며, 자율성의 실현은 개인선뿐만 아니라 공동선의 실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라, 여러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율성의 실현은 공동체 안에서의 실현이며, 사회적 맥락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맥락을 떠나 고려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의 문제제기는 개인의 윤리적 선택이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각을 단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형성해야 하는지를 다르게 보게 한다. 즉 자율성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측면들을 고찰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사회적 제반 시설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접근은 비록 사회적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한 자율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낙태의 논쟁에서 비록 공동체주의적 접근을 한다고 하여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율성이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장점을 지닐 것이다. 사회적 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정책의 개선이나 지원을 공동체주의적 접근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탁아소 및 어린이 집

확충, 미혼모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의학적 사유에 대한 낙태도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지적할 수도 있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또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기환자의 통증완화치료에 대한 지원과 질적 개선, 간병인 지원 등의 필요성을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는 강조할 것이다. 존 애라스(John D. Arras)가 의사조력자살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자율성이 실현되는 사회적 환경의 정비 없이는 오남용의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28)</sup> 이 점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지 개인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 즉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이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문화적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준다.

나아가,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실사 전부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찰하게 한다. 에치오니는 개인적 결정들과 공공 정책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기준들 중 하나로 다음을 제시한다. 그는 만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이 될 수 있는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부작용을 흡수하기 위한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이러한 기준은 만약 개인선이 희생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부차적인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27) Murray, T. H., “Communities Need More Than Autonomy,” *Hastings Center Report*, Vol 24, 1994, p.33.  
 28) Arras, J. D., “Physician-Assisted Suicide: A Tragic View,” *Journal of Contemporary Health Law and Policy*, 1997; 13,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7th edition), edited by Steinbock B., Arras J. D. & London A. J., McGraw-Hill, 2008: 477-483에 제 수록.  
 29) Amitai E.,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p.370.

25)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p.505.  
 26) Daniel C.,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pp.505-506.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가 연구 참여로 인해 얻는 개인적인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미래의 환자와 연구를 위해 참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사회는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의료 정보 유출의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VI.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학문적 과제

우리가 지지하는 공동체주의는 자율성과 공동선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로 인식되는 입장이었고,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새롭게 형성하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접근 방법을 넘어 서서, 공동체주의가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과제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해답이 변질히 검토되기 전까지는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에 대한 온전한 실질적 이론이라 판단되기 어렵다.

우선, 공동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앞서 칼라한의 물음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 의·생명과학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우선 물을 것을 공동체주의는 요청한다. 그리고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이용 여부는 일단 그 기술이 공동선과 충분히 양립가능할지부터 살핀 후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도 대체 공동선은 무엇인가? 공동선으로 어떤 가치들이 지칭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동체주의가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도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공동선

에 대해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동선의 미명하에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마도 모든 사회가 공유하는 윤리적 규범들의 체계인 공동 도덕은 무엇이 공동선인지 규명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sup>30)</sup>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동선은 하나의 위계질서를 지니고 있지 않는 가치들의 다발로서 가치다원주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에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또 다른 별도의 작업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둘째, 공동체주의는 윤리적 이견 대립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의견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칼라한은 자유로운 선택 중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고찰할 것을 요청한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생명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인식론적 회의주의의 입장을 지닌 것으로 마크 쿠츠키(Mark G. Kuczewski)는 평가한다.<sup>31)</sup> 칼라한의 주장처럼,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할 수 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될 수 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로운 선택들 중 일부가 그른 판단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존중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윤리적 이견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불일치(disagreement)를 극복하고

의견일치에 도달하는 방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그레아만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전체하는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성적 불일치에 머무르지 않고 절충안 모색으로 나아가는 답론의 방식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도야말로 공동체주의자들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인식론의 영역일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이나 종교적 전통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 하에서 의견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 답론의 방식은 무엇인가? 적어도 도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일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반회의주의적 입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VII.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생명윤리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사실상 자유의 원칙에 가깝다고 지적하였으며,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사회이념으로 자리 잡는 사회상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생명윤리 담론은 생명윤리의 많은 쟁점들이 지닌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논의하는 방식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

으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공동체주의를 검토하였다. 우리가 지지하는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의 또는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균형을 추구하는 반응적 공동체주의임을 분명히 하였다.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 또는 고려사항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칼라한의 견해에 주목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어떤 기술이 단지 개인들에게 유용하다거나 의미를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과 달리, 공동체주의는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제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그는 자유로운 선택 중에서도 무엇이 옳고 나쁜 선택인지 구별하는 것까지 자율성 개념이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단지 자유 존중의 원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공동체주의를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을 제기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동체주의는 생명윤리적 쟁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의 성격을 달리 보고 기존과는 다른 쟁점들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생명윤리학에서 답해야 하는 문제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지금과는 다르게 해결되어야 함이 시사되고 있다.

30) Tom L. Beauchamp &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6th edition), pp.2-5와 pp.387-397에서 공동도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31) Kuczewski M. G., “The epistemology of communitarian bioethics: Traditions in the public debates,” *Theoretical Medicine*, Vol.22, 2001, pp.135-138.

Abstract]

## Autonomy and Communitarian Bioethics\*

Yoo, Sujung\*\* · Choi, Kyungsuk\*\*\*

This paper critically considers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ioethical discourse. Although not rejecting the modern ideal of autonom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is no more than that of respecting freedom. The overestimation of autonomy reflects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liberal individualism had become an ideology. However, liberal individualistic bioethical discourses based on autonomy has their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fully deal with social problems embeded in bioethical issue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we need to explore a new approach to bioethical issues and to note a communitarian approach as a new one. Communitarianism this paper supports is not an authoritarian one, but responsive one that pursues the balance between individual good like autonomy and common good. As Callahan points out, communitarianism suggests a new approach by raising the question, “What will a new technology mean for all of us together?” This is different from liberal individualistic approach that raises whether a new technology is useful for an individual and what it means for him/her and decide whether to adopt it. In addition, Callahan argues that autonomy should be broaden to encompass an analysis of what constitutes morally good and bad free choices. This shows that communitarianism worries about the position in which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is understood to be that of respecting freedom. Communitarianism is valuable in that it provides new approaches that forms bioethics issues, although it produces a new concrete solution. Communitarian perspectives suggest that different bioethical issues may be raised and we may solve them differently.

**Key words** : autonomy, individual good, common good, liberal individualism, authoritarian communitarianism, responsive communitarianism

원고투고일 : 2013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 2013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28일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B8A03034450).

\*\* Bioethics Policy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